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및 위탁수하물 요금 변경

- 기내 반입수하물 합계 **7.0kg** 이내
- 위탁수하물 요금체계 변경
- 정시 운항률 향상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Peach, 대표이사 이노우에 신이치)는, 2018년 10월 28일 탑승부터 기내반입 수하물 중량 합계가 10kg 에서 7kg 로 변경되며, 위탁수하물 요금 체계 또한 더 심플하게 변경된다. 이유는,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수하물 수납에 따른 기내 혼잡을 완화해, 정시 운항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위탁수하물은 일본 국내선 노선마다 정해져 있던 요금을 없애고, 국제선은 3가지로 나누어진 요금 체계를 한국노선과 그 외의 국제선으로 총 2가지로 변경된다. 복잡했던 요금 체계가 간단해진다.

또한, 기내반입 수하물 및 위탁수하물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이전과 같다. 새로운 규정은 2018년 10월 28일 탑승부터 적용된다.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2018년 10월 27일 탑승 전	2018년 10월 28일 탑승 이후
크기	3 변의 합이 115cm 이내로, 각 변이 50cm×40cm×25cm 이내	
개수	개인 신변 소지품 1 개 외, 1 인당 1 개(합계 2 개까지)	
무게	2 개의 합이 10kg 까지	2 개의 합이 7.0kg 이내

■위탁수하물 요금 Zone(노선)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

<일본 국내선>

2018년 10월 27일 탑승까지	2018년 10월 28일 탑승부터
--------------------	--------------------

Zone1	오사카(간사이)	니가타	일본 국내선 노선
		도쿄(나리타)	
		마츠야마	
		후쿠오카	
		나가사키	
		미야자키	
		가고시마	
센다이	삿포로(신치토세)		
Zone2	오사카(간사이)	삿포로(신치토세)	
		구시로	
		센다이	
		오키나와(나하)	
		이시가키	
	후쿠오카	도쿄(나리타)	
		오키나와(나하)	
		삿포로(신치토세)	

<국제선>

2018년 10월 27일 탑승까지			2018년 10월 28일 탑승부터		
Zone3	오사카(간사이)	서울(인천)	Zone A	오사카(간사이)	서울(인천)
		부산(김해)			부산(김해)
	오키나와(나하)	타이베이(타오위안)		도쿄(하네다)	서울(인천)
가오슝		오키나와(나하)		서울(인천)	
Zone4	오사카(간사이)	타이베이(타오위안)	Zone B	오사카(간사이)	타이베이(타오위안)
		가오슝			가오슝
		홍콩			홍콩
		상해(푸둥)			상해(푸둥)
	오키나와(나하)	서울(인천)		오키나와(나하)	타이베이(타오위안)
		방콕(수완나품)			가오슝
	도쿄(하네다)	서울(인천)			방콕(수완나품)
		타이베이(타오위안)		도쿄(하네다)	타이베이(타오위안)
		상해(푸둥)			상해(푸둥)
	센다이	타이베이(타오위안)		센다이	타이베이(타오위안)
삿포로(신치토세)	타이베이(타오위안)	삿포로(신치토세)	타이베이(타오위안)		

요금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https://www.flypeach.com/pc/kr/news/news_20180702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한 일본 최대 LCC 이다. 간사이공항에 이어, 2014 년 7 월 나하공항, 2017 년 9 월 센다이공항을 거점공항화하며,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5 개 노선, 국제선 15 개 노선을 취항 중이다. 1 일 기준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했다. 2018 년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 - 구시로 노선을 취항하는 한편, 2018 년도 내에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이다.